

“광주 U대회 유치 위해 정부 모든 지원 다하라”

李대통령 거듭 강조…‘브뤼셀 낭보’ 고대 시민 응원 열기 고조

2015 U대회 개최지 결정 D-3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이 사흘 앞(현지시간 23일 기준)으로 임박한 가운데 브뤼셀의 낭보를 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시의 U대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강조해 광주시의 막바지 득표 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 “오는 23일 최종 개최지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U대회 유치에 힘입어 광주를 세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와 캐나다 에드먼턴, 대만 타이베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한국시각 24일 새벽 3시) 개최지 표결을 앞두고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회

개최지 결정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거듭 표명해 FISU 집행위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등 광주시의 막판 유치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FISU 실사단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의 전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회 개최지 결정에 맞춰 광주시의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도 열린다. 2015광주 U대회 유치위원회는 FISU의 2015년 대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2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광주시청 문화광장(야외 음악당)에서 ‘U대회 유치 기원 철야 응원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U대회 유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해 응원을 펼친다. 철야 응원제는 유치기원 퍼포먼스, 응원 이벤트, 공연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최고의 향한 도전’을 주제로 한 제1부에서는 농악대, 사물놀이, 한마당과 토틀 기원, 퍼포먼스, 인기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또 새벽 1시30분부터 2시50분 FISU 개최지 발표 직전까지 유치기원 시민 한마당이 진행, 투표의 순간 145만 광주시민의 ‘기(氣)’를 모으는 응원전이 이어진다. 응원시간에는 10분간 토틀을 들고 유치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대형 멀티비전이 설치되고 심야응원에 따른 먹거리 장터, 승리의 밤을 자축하는 시민 축제마당도 열린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9일 확대간부회에서 “현지 실사 결과 3개 도시에 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정부 지원에 적극적이나 여부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모든 시민들이 열정을 바쳐온 만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 “오는 23일 최종 개최지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U대회 유치에 힘입어 광주를 세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선훈은 지금 장미 천국

지금 조선훈에 가면 장미천국을 만날 수 있다.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난 조선훈 장미원은 연일 1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명소를 자리잡았다. 지난 15일 문을 연 장미원은 11월까지 개장한다. /이명박기자 mjna@kwangju.co.kr

화학비료 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환경보전 위해 지역·작물별 ‘맞춤형 비료’ 지원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 폐지되고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업산업진척위원회’는 18일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에서 “현재와 같은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비료값 급등에 따른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2005년 폐지됐다가 작년 하반기 국제비료값이 급등하면서 부활했던 비 보조금에 대해 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는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비료는 똑같은 화학비료이지만 토양 검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작물별로 맞춰 질소·인산·칼륨 등의 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말한다.

위원회는 맞춤형 비료를 쓰는 농가 외에도 유기질 비료나 액비(액체비료) 등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비료 사용량을 감축한 농가, 저농약·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일일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는 한우와 육우(고기를 목적으로 키운 젖소), 폐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급하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우량 송아지 생산 활성화나 돼지열병 치료 등 질병 근절이나 생산성 제고에 보탬이 되는 보조금으로 이를 전환할 계획이다.

일회성 보조 성격의 보조금은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폐비닐 1kg당 30원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이를 없애고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 다음달말 발행

6월 말부터 5만 원권 화폐(사진)가 시중에 풀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일 “다음 달 24일을 전후로 고액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사임당 초상이 들어가는 5만 원권은 가로 154mm, 세로 68mm로 새 1만 원권보다 가로는 6mm가 크고, 세로는 같으며 색상은 황색 계열이다.

한은은 5만 원권의 발행번호 1~100번은 화폐금융박물관에 보관·전시하고 101번부터 일정 물량은 인터넷 경매에 부친 뒤 나머지 물량은 시중은행에 배부할 예정이다.

중요한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괄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5·18 기념식 대통령 불참 의미 잘 생각해야”

안경환 인권위원장 “5월 단체 갈등 가슴 아파”

안경환(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서 표출된 5월 단체간 갈등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위원장은 19일 전남대 5·18연구소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 강연회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전달 5·18기념식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세 번째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올해 기념식은 예년과는 느낌이 달랐다”며 “과거에는 이견이 있더라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광주·전남지역 5·18 관계자들이 기념일 당일엔 갈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기념일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 낮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념식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상 첫 번째 기념식으로 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묘지가 국립 묘지로 승격된 지난 2002년 7월 이후 2003년부터는 매



년 5·18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또 “5·18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지만 절대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군부 독재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민은 5·18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학생들이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천신일 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르면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제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당 당시 국제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천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수익원을 회수하지 않는 ‘채무면제’ 방식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

비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천 회장은 2003년 세중나모인력택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괄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최근 대한통운 광주지역 일부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집단배송 거부로 야기된 화물연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1.故 박종태씨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매우 가슴 아픈 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고인은 대한통운과는 고용 또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인 화물연대 소속 간부입니다.
- 2.택배 수수료 인상에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통운 광주지역 택배수수료는 업계 최고 수준인 바,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합의서 체결은 물론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 3.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직후부터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습니다.

3차례(3월 31일 / 4월 6일 / 5월 15일)에 걸쳐 정규직(정년 58세 / 4대 보험 보장 / 자녀 학자금 지급 등) 입사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초 집단배송 거부 76명 중 23명이 복귀 하였고, 14명은 복귀를 논의 중에 있으며, 공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인원 30여 명이 “화물연대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배송을 집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4.우수한 노사문화 전통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통운은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이자 4회 연속(12년)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서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국가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20일 대한통운 임직원 일동